日本 漢籍訓点資料 研究의 現況과 課題*

小助川貞次**

요 약

1. 訓點資料・訓點語 研究의 現況 훈점

日本의 訓點資料・訓點語 研究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가 있다. 그동안 目錄, 複製本, 研究書 등이 다수 公刊되어 연구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 상황은 젊은 연구자나 지도자가 부족하여 결코 낙관할 수 없다. 또한 實地調査의 현장에서만 전수 가능한 여러 가지 '기술'을 어떻게 보존・계승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커다란 과제이다.

2. 漢籍訓點資料의 배경에 있는 學問的 活動

日本의 漢籍訓點資料는 佛書訓點資料에 비해 現存 點數가 적어서 鎌倉時代까지의 書寫加點本을 합쳐도 200백여 점밖에 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漢籍訓點資料를 상호비교하여 訓讀加點의 배경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

* 本稿는 「訓釋資料としての漢籍訓点資料」(第50回 國際東方學者會議 심포지움 「漢文の自言語による訓讀」 東方學會(東京), 2005年 5月)에 기초하여, 최근 몇 년 동안 발표한 내용과 日本 국내외의 實地調査의 성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며, 科學研究費・基盤研究B(2) 「國際的視点から見た日本語・朝鮮語における漢文訓讀に關する實證的研究」에 의한 연구 성과의 일부이다.

本稿를 집필함에 있어 韓國 口訣學會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지원을 받았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日本 富山大學 人文學部 教授, kskgawa@hmt.u-toyama.ac.jp

일면이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형태, 註釋書 기입, 訓點과 註釋書의 관계, 加點의 分布 등에서 보면, 訓讀加點의 배경에는 制度에 의해 뒷받침된 수준 높은 學問的 活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學問的 活動을 반영하는 加點은 敦煌文獻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日本의 漢籍訓讀의 根幹이 中國의 制度나 學問樣式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3. 앞으로의 展望

訓點資料는 일반 文字資料와 같이 안정된 자료가 아니다. 複製本이나 解讀文이 공개된 자료라도 재조사를 했을 때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일이 의외로 많다. 또 발달된 컴퓨터 환경을 활용하여 공개된 畵像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단 訓點資料·訓點語 硏究의 입장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디지털版 點本書目』을 작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또 漢文訓讀은 東아시아 漢字文化圈에 공통되는 현상이며, 이것은 訓讀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점이다.

현재의 어려운 연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敎材와 敎授法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日本, 韓國, 中國, 歐美의 東洋學者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연구도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핵심어: 漢籍訓點資料, 漢文訓讀, 學問的 活動, 敦煌文獻, 東아시아 漢字文化圈

1. 들어가는 말

訓點資料가 日本語史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訓點資料의 가치는 日本語史 연구

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訓點資料는 漢文本文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한 것이고, 특히 10세기에 加點된 漢籍訓點資料의 漢文本文은 唐나라 寫本이 많아서 후세의 텍스트에 대한 本文 研究史上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訓點資料는 訓讀이라는 행위가 訓點으로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訓讀이란 어떠한 행위인가 하는 테마를 실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나아가 訓讀이라는 행위는 佛書나 漢籍을 學習研鑽하는 필수적인 과정의 하나이므로 典籍 전체에서 볼 때 佛教教學史, 日本漢學史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訓點資料는 學問史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訓點資料에 대한 필자의 인식은 위와 같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인식 위에서 訓點資料, 訓點語 研究의 현황을 개관하고, 漢籍訓點資料의 배경이 되는 學問的 活動에 대해서 기술하고, 日本의 漢籍訓點資料와 敦煌加點本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訓點資料, 訓點語 研究의 現況

2.1 研究의 背景

日本의 訓點資料, 訓點語 研究는 大矢透『仮名遣及仮名字體沿革史料』(1909年)의 仮名字體研究, 吉澤義則「≪岩崎文庫所藏≫尙書及び日本書紀古鈔本に加へられたる乎古止點に就きて」(1918年)에 의한 오코토[ヲコト]點 研究에서 시작하여, 이후 약 1세기에 걸쳐 연구되어 왔다. 1953年 11月에는 訓點語學會가 발족하였고, 이듬해 4月에는 기관지 『訓點語と訓點資料』가 창간되어 현재 第117輯(2006年 9月)까지

발행되었다. 발표된 논문 및 자료는 552편이며, 연구발표회도 지금까지 95回(~2006年 11月) 개최되어 652편의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10년 정도 사이에 訓點資料, 訓點語 硏究에 대한 총괄이 행해지고 있다.

- 春日和男「「訓點語學」こと始め」(『訓點語と訓點資料』第93輯, 1994年)
- 築島裕「訓點語硏究の足跡を辿つて」(『訓點語と訓點資料』第93輯, 1994年)
- 石塚晴通「訓點語硏究 今後の展望」(『訓點語と訓點資料』第93輯, 1994年)
- 築島裕「訓點語學硏究史」(『訓點語辭典』, 東京堂出版, 2000年)
- 曾田文雄「訓點語學會草創の頃」(『訓點語と訓點資料』第112輯, 2004年)
- 月本雅幸「訓點語硏究の現狀とその將來」(『訓點語と訓點資料』第112輯, 2004年)
- 築島裕「訓點語學會回顧」(『訓點語と訓點資料』第114輯, 2005年)

訓點語學會는 1996年 第17期 日本學術會議의 學術團體로 등록되어 人文學 내에「訓點語學」이라는 硏究領域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日本에서 訓點資料, 訓點語 硏究가 이와 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 硏究材料가 되는 9世紀 이후의 訓點資料가 풍부하게 現存한다는 점.
- 古訓點 해독에 필수적인 點圖(集)의 집적이 풍부하였던 점.
- 漢文訓讀이 學校敎育(中等敎育) 내에서 충분히 배양되었다는 점.
- 9~10世紀의 日本語資料로서는 訓點資料가 거의 유일한 자료라는 점.

訓點資料, 訓點語 硏究는 漢文古寫本, 古刊本의 實地調査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성립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訓點資料의 目

錄이나 研究書 등의 유용한 몇몇 서적도 간행되어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정비되었다.

- 吉澤義則『點本書目』(岩波書店, 1931年)
- 遠藤嘉基, 廣浜文雄『新版點本書目』(明治書院, 1957年)
- 高山寺典籍文書綜合調査團『高山寺經藏典籍文書目錄』(東京大學出版會, 1973年~1982年)
- 小林芳規『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漢籍訓讀の國語史的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67年),『角筆文獻の國語學的研究』(汲古書院, 1987年),『角筆文獻目錄』(1991年~),『角筆文獻研究導論』(汲古書院, 2004年~2005年)
- 築島裕『平安時代訓點本論考≪ヲコト點圖仮名字體表≫』(汲古書院, 1986年)
- 沼本克明「『訓點語と訓點資料』文獻名索引」(『訓點語と訓點資料』第94輯, 1994年)
- 阿部隆一「本邦現存漢籍古寫本類所在略目錄」(『阿部隆一遺稿集』第1卷, 汲古書院, 1993年)

이러한 目錄類 및 研究書는 訓點資料의 所在는 물론이고, 奧書나 訓點의 종류, 書誌 사항 등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중에는 정밀한 사진을 함께 싣고 있는 것도 있어서 訓點研究의 學問的 體系를 보여주는「鳥瞰圖」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2 現存하는 漢籍訓點資料

日本 國內에 現存하는 漢籍訓點資料는 佛書訓點資料에 비해 대단히 적다. 書寫 加點 年代가 가장 오래된 것은『周易抄』(宇多天皇 宸翰, 寬平 年間(889-898) 抄出, 東山御文庫藏)이고, 그 이전 것은 알려

져 있지 않다. 또한 10世紀 자료는 단지 아래의 것이 現存할 뿐이다.

『古文尙書』(延喜頃(901-923)點, 東洋文庫·東京國立博物館·東山御文庫藏)
『毛詩卷第六』(延喜頃點, 東洋文庫藏)
『春秋經傳集解卷第二』(十世紀初期頃點, 藤井齊成會有鄰館藏)
『漢書楊雄傳』(天曆二年(948) 藤原良佐點, 上野家藏)
『漢書周勃傳』(天曆頃(947-957)點, 高野山大明王院藏)
『漢書高帝紀下』(天曆頃 角筆點, 石山寺藏)
『世說新書第六』(天曆頃點, 小川家·京都國立博物館·小西家·東京國立博物館藏)
『蒙求』(長承三年(1134) 奧書, 十世紀後半頃 朱點, 字音資料, 東京國立博物館藏)

11, 12世紀의 자료도 現存하는 것은 다음에 불과하다.

『史記呂后·孝文·孝景本紀』(延久五年(1073) 大江家國點, 毛利博物館·東北大學附屬圖書館·大東急記念文庫藏)
『文選卷第十九』(康和元年(1099)點, 東山御文庫藏)
『文選卷第十九出師表』(九條本 康和元年點의 僚卷으로 추정, 宮內廳書陵部藏)
『五臣注文選卷第二十』(院政初期點, 天理圖書館藏)
『文選卷第二』(院政初期點, 宮內廳書陵部藏)
『白氏文集卷第三·四』(天永四年(1113) 藤原茂明點, 京都國立博物館藏)
『文選集注卷第八·九』(院政期頃點, 東山御文庫藏)
『史記孝景本紀』(大治二年(1127)點, 實踐女子大學山岸文庫藏)
『文選卷第十七』(保延二年(1136)點, 東山御文庫藏)
『春秋經傳集解卷第十』(保延五年(1139) 淸原賴業點, 東洋文庫藏)

『史記秦本紀』(天養二年(1145)點, 東洋文庫藏)
『黃帝內經太秦』(仁安二年(1167) 丹波賴基點, 仁和寺藏)
『文選卷第二十』(承安二年(1172)點, 東山御文庫藏)
『古文孝經』(建久六年(1195)點, 猿投神社藏)
『史記夏本紀』(平安末期 또는 鎌倉初期點, 東洋文庫藏)

위에 제시한 자료에 鎌倉時代의 자료를 합쳐도 200점 정도이다. 佛書訓點資料가 平安時代 初期(8世紀末~9世紀)에만 180점 정도 現存하는 것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수이다. 이러한 現存 자료수의 불균형은 訓點資料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한편 敦煌文獻도 역시 대다수가 佛典이고, 佛典과 漢籍의 보급도나 수용 양상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오히려 漢籍을 취급하는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되는 자료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訓點語라는 관점에서 보면 순수한 漢籍인가 아닌가 하는 점보다도 博士家點이 加點된 자료라는 관점이 중요하고, 거기에는 『日本書紀』나 『医心方』 등의 國書訓點資料도 포함되어 漢籍訓點資料와 마찬가지로 귀중한 연구자료가 된다.

『岩崎本日本書紀』(平安中期點, 院政期點, 室町期點, 京都國立博物館藏)
『圖書寮本日本書紀』(永治二年(1142)頃點, 宮內廳書陵部藏)
『前田本日本書紀』(院政期點, 前田育德會藏)
『医心方』(院政期點, 仁和寺藏)
『医心方』(天養二年(1145)點, 東京國立博物館・お茶の水圖書館成簣堂文庫藏)

現存하는 漢籍訓點資料의 대다수는 神社, 寺院에 소장되어 있고,

紙背에 佛典이나 國書가 적혀 있는 것이 많다. 또한 『遊仙窟』 등은 現存하는 책의 대부분이 眞言宗系 僧侶에 의해 서사된 것이고, 佛家를 제외하면 『遊仙窟』의 傳本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學問的, 文化的 교류 속에서 訓點資料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며 漢籍, 國書, 佛書를 취급하는 입장이 각각 배타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2.3 부족한 연구자, 지도자

日本의 訓點資料, 訓點語 研究는 1世紀에 가까운 研究史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訓點資料가 다수 現存한다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연구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그것은 연구자, 특히 젊은 연구자나 지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1)]

○大學敎育에서 訓點資料를 다루는 수업이 적다.

Google 檢索結果(2007/1/17) : 실러버스+

- 訓點資料 : 52件(실제로 訓點資料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수업 수)
- 源氏物語 : 12,600件, 万葉集 : 767件, 夏目漱石 : 928件, 森鷗外 : 749件, 司馬遼太郎 : 1,990件
- 訓讀 : 701件, 敦煌本 : 12件, 角筆 : 16件, 口訣資料 : 0件

○訓點資料를 취급하는 연구자가 적다.

ReaD(研究開發支援 總合디렉토리) 檢索結果(2007/1/17)

- 訓點資料 : 總件數 53件, 研究者DDB 53件
- 源氏物語 : 總件數 477件, 研究者DDB 469件, 研究課題DDB 4件,

1) 이와 같은 현상을 타개할 하나의 방책으로서 基礎的인 書誌情報, 利用·作成 가능한 畵像, 研究文獻目錄 등을 포함한 「디지털版 點本書目」이 구상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小助川貞次(2006c) 참조.

研究資源DDB 4件

저명한 古典作品이나 近現代 作家 및 作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서 訓點研究의 상황은 대단히 좋지 않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이미 訓點語學會에서도 공론화되었고 필자도 견해를 밝힌 바 있다.

- フォーラム「日本語史研究と訓點語學會」(第89回訓點語學會, 2003年 11月 →『訓點語と訓點資料』第112輯, 2004年 3月)
- 小助川貞次「漢文訓讀の研究と大學教育」(富山第一銀行奬學財團 研究助成事業 프로젝트 報告書『漢字文化における知的財産の共有と繼承に關する學際的研究』, 2005年 3月)

젊은 연구자, 지도자의 부족이라는 현상이 과연 과거에도 그랬던 것인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판단재료로서 訓點語學會 會員數의 추이를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다. <표 1>을 보면 근래 30년간 거의 증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연구기반이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이상 연구자 인구의 확대가 곤란하다는 것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급속하게 高齡化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大矢透, 吉澤義則와 같은 학자를 訓點資料, 訓點語 研究의 草創期 世代, 訓點語學會 創立時의 연구자를 第一世代, 斯學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이미 정년퇴직한 연구자를 第二世代, 현재 大學이나 研究機關에서 연구 및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를 第三世代(JIS 世代)로 칭한다면, 앞으로의 운명은 第四世代(Windows/Internet 世代)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와 함께 實地調査의 현장에서만 傳授할 수 있는 여러 가지「기술」을, 第三世代를 통해서 第四世代 이후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재료가 된 종이를 손으로 만졌을 때의 감촉이나 紙質, 墨色, 筆勢 등을 단서로 한 年代 判定 등,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귀중한 정보가 많이 있는 것이다.

<표 1> 訓點語學會 會員數의 변화

會員數	時 期	根據資料
124	1954.4	第1輯, 會員數
341	1965.8	第30輯, 名簿
365	1977.11	第60輯, 名簿
450	1980.9	國語學大辭典
405	1982.5	第68輯, 名簿
424	1985.10	第75輯, 名簿
440	1988.2	第79輯, 名簿
424	1992.9	第89輯, 名簿
421	1996.10	第99輯, 名簿
427	1997.5	第100輯, 彙報
422	1998.5	第101輯, 彙報
428	1999.5	第103輯, 彙報
441	2001.5	第107輯, 彙報
427	2004.5	第113輯, 彙報
423	2006.9	第117輯, 彙報

3. 漢籍訓點資料의 배경에 있는 學問的 活動

漢籍訓點資料는 佛書訓點資料에 비해 現存 點數가 적고, 鎌倉時代까지의 書寫加點本을 포함해도 200여 점 정도밖에 없다. 이러한 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漢籍訓點資料를 서로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

訓讀加點의 배경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訓讀加點이라는 구체적인 작업은 특정 개인에 의한 행위임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텍스트의 형태, 註釋書를 기입하는 행위, 訓點과 註釋書의 관계, 나아가 加點의 분포 등을 살펴볼 때, 訓讀加點의 배경에는 제도에 의해 뒷받침된 수준 높은 學問的 活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러한 學問的 活動를 반영하는 加點은, 日本의 漢籍訓點資料뿐 아니라 敦煌文獻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고, 日本 漢籍訓讀의 근간이 中國의 制度나 學問樣式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10世紀에 加點된 漢籍訓點資料를 중심으로 漢籍訓點資料의 배경에 있는 學問的 活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텍스트의 형태와 註釋書 기입

漢籍訓點資料는 텍스트의 형태가 佛書訓點資料와는 다르며, 細註에 전통적인 古註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본문과 註釋書가 한 세트로 수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1> 毛詩卷第六 (細註에 古註가 적혀 있다.)

또한 細註 以外의 古註도, 行間이나 欄外에 기입된 것이 있어서 佚文硏究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漢書楊雄傳』에는 姚察 『漢書訓纂』이나 顧胤 『漢書古今集義』 등의 六朝隋唐의 佚籍이 다수 인용되어 있고, 『古文尙書』에는 唐鈔本系의 『尙書釋文』이 인용되어 있다.[2] 神田喜一郎 博士는 『日本書紀古訓攷證』(1949年)에서, 書紀의 古訓이 漢土訓詁學上으로 볼 때 지극히 정확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텍스트 상태로 볼 때 日本書紀 이상으로 漢籍訓點資料는 「漢土訓詁學上」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사진 2-1> 漢書楊雄傳
(『漢書訓纂』과 『漢書古今集義』 기입 예)



<사진 2-2>
古文尙書(釋文 기입 예)

한편으로 사전을 인용하여 기입한 것이 의외로 적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학습에서 사전이 차지하는 역할을 생각할 때, 訓讀의 場에서도 『切韻』이나 『玉篇』 등의 전통적인 사전 이용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訓讀의 場에서 실제로 참조된 것은 이러한 전통적인 사전이 아닌 註釋書였음을 시사하고 있다.[3]

---

2) 『漢書楊雄傳』에 기입된 佚文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神田喜一郎(1935)의 지적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沼本克明(1982)를 참조할 수 있다. 또 『古文尙書』에 대해서는 沼本克明(1969, 1982)에 자세하다.

3) 『漢書楊雄傳』에서 『玉篇』과 日本語 訓의 관계에 대해서는 小助川貞次(1998),

여기에서는 破音·聲點과 日本語 訓[和訓]의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加點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2 訓點과 註釋書는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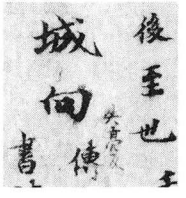
(1) 破音·聲點

現存하는 漢籍訓點資料 중 10世紀의 加點本에 대해서는 텍스트 전체를 한자음으로 음독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나뉘는데, 經書는 陸德明의 『經典釋文』이 철저하게 참조되고 난 이후에 破音·聲點이 加點되어 있다.[4] 『春秋經傳集解』과 『毛詩卷第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표2 『春秋經傳集解』와 『經典釋文』 對照表

	聲點	音註기입	加點없음	小計
『經典釋文』에 音註 있음	22(*3)	20(3)	62	101
『經典釋文』에 音註 없음	7	0	—	7
合計	29(3)	20(3)	62	108

* ( ) 안은 聲點과 音註 모두 加點된 예



<사진 3-1> 春秋經傳集解 (釋文과 聲點)

표3 『毛詩卷第六』(朱點)과 『經典釋文』 對照表

	聲點	音註기입	加點없음	小計
『經典釋文』에 音註 있음	138(*46)	59(46)	22	173
『經典釋文』에 音註 없음	4	0	—	4
合計	142(46)	59(46)	22	177

* ( ) 안은 聲點과 音註 모두 加點된 예



사진3-2 毛詩卷第六 (釋文과 聲點)

또 同資料의 『切韻』, 『玉篇』의 이용에 대해서는 小助川貞次(2005e)에 자세하다.

4) 『春秋經傳集解』에 대해서는 沼本克明(1982)의 지적이 있고, 小助川貞次(2001b, 2001c)에서도 다루고 있다. 『毛詩卷第六』에 대해서는 原卓志(1987)에 자세하다.

또 역사서의 경우 細註나 기입된 주에 포함된 『音義』를 참조하여 加點하고 있다.[5] 이러한 音註에 근거한 加點은 10世紀 이후의 漢籍訓點資料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같은 10世紀에 加點된 漢籍訓點資料에서도 『世說新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破音이나 聲點이 加點된 예를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破音이나 聲點이 日本 訓點資料에 등장하는 시기 문제와 관련이 있으나, 『世說新書』의 경우 劉孝標註(細註) 안에 音註가 존재하지 않고, 또한 『經典釋文』과 같이 텍스트 전체에 대한 音註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된다.[6]

(2) 日本語 訓

日本語 訓의 경우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古註에 근거하여 加點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10世紀에 加點된 漢籍訓點資料가 모두 같은 상태인 것은 아니다. 『古文尙書』, 『漢書楊雄傳』과 같이 그 관계가 비교적 농후한 것과 『毛詩卷第六』, 『春秋經傳集解』, 『世說新書』 등과 같이 희박한 것으로 나뉜다.

『古文尙書』는 經 本文의 訓讀에 孔安國註(細註 : ≪ ≫로 표시)의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다.[7]

---

5) 『漢書楊雄傳』에 대해서는 小助川貞次(1990)에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6) 小西本 7行 「識」 去聲의 위치에 朱圈點과 朱仮名 「セ」가 있는데 「(シル)セる所」라고 訓讀할 수 있다. 『廣韻』에는 「識」에 「(去聲・職吏切)標識見禮本音式」, 「(入聲・賞職切)說文云常也一曰知也」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經典釋文』(周易音義)에도 「[多識]如字又音試劉作志」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去聲이 破音임을 알 수 있다.

7) 자세한 것은 小助川貞次(2005c) 참조.

淮沂其乂蒙羽其藝

≪二水已治二山已可種藝也≫ (岩崎本18)

「藝」에 甲種朱點「(ウ)ヘシ」→ 孔安國註「可種藝」이용



<사진 4> 古文尚書「藝」

旣遷奠厥居乃正厥位

≪定其所居正郊廟朝社之位也≫ (岩崎本140)

「奠」에 乙種墨點「サタメ」→ 孔安國註「定」이용



<사진 5> 古文尚書「奠」

孔安國註(細註)도 訓讀의 대상이 되었고, 이 경우에는 『古文尚書』 전체를 재주석한 『尚書正義』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東南據濟西北距河也≫ (岩崎本3割)

「距」에 乙種墨點「イタレリ」

[正義]傳東南至距河 正義曰.此下八州.發首言山川者.皆謂境界所及也.據謂跨之.距至也.



<사진 6> 古文尚書「距」

『尚書正義』와의 관련은 經文의 訓讀에서도 역시 인정된다.

雷夏旣澤灉沮會同≪雷夏澤名雍沮二水會同此澤也≫ (岩崎本4)

「澤」에 角筆點・乙種墨點「トナヌ」, 甲種朱點「あり」

[正義] 傳雷夏至此澤 正義曰.洪水之時.高原亦水.澤不爲澤.雷夏旣澤.高地水盡.此復爲澤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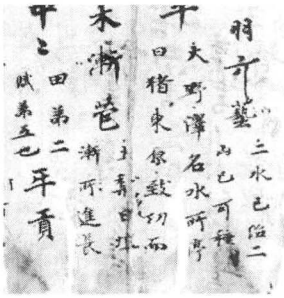


<사진 7> 古文尙書「澤」

이 자료는 欄上에 「七」(九條本98), 「十四」(九條本335), 「十七」(九條本543), 「十九」(岩崎本326), 또 九條本 卷末의 篇章名에는 「二」에서 「廿」까지의 숫자가 기입되어 있고, 이것은 『尙書正義』의 卷數와 일치한다. 또 經文에는 「ㄱ」과 「●」, 孔安國註에는 「·」이 加點된 부분도 있고, 『尙書正義』의 註解 범위와 완전히 일치한다. 10世紀의 加點 단계에서 全卷에 걸쳐 『尙書正義』가 참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正義』와 대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加點은 『春秋經傳集解』에서도 볼 수 있어서 공통적인 學問的 基盤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사진 8-1>
古文尙書(經文)



<사진 8-2>
古文尙書(割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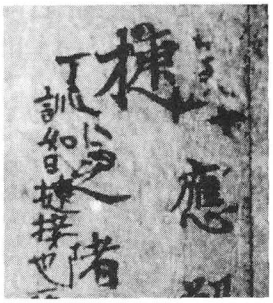
<사진 8-3>
春秋經傳集解

『漢書楊雄傳』은 漢書 本文의 訓讀에 顔師古註(細註)와 기입된 註인 『漢書訓纂』, 『漢書古今集義』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8]

豈駕鵞之能捷≪應劭曰…晉灼曰捷及也師古曰…≫

8) 자세한 것은 松本光隆(1982), 小助川貞次(1987, 1998), 石塚晴通(1992b) 참조.

「捷」: 右側에 朱點「オヨハむヤ」
左側에 墨點「マシハラ(ムヤ)」
[기입된 註] 訓如曰捷接也晉云々



<사진 9> 漢書楊雄傳「捷」

「オヨハむヤ」는 顔師古註 「應劭曰…晉灼曰捷及也」의 「及」을 이용하였고, 「マシハラ(ムヤ)」는 바로 왼쪽에 기입되어 있는 「訓如曰捷接也晉云々」의 「接」을 이용하여 도출하고 있다.

또 現行 漢和辭典의 기술과는 다른 加點 내용도 존재한다.[9]

超既離乎皇波≪應劭曰淑善也言去汾隅從巫山得周楚之美烈也超遠也…≫
「超」의 左側에 墨點「トホウシテ」



<사진 10> 漢書楊雄傳「超」

「トホウシテ」는 顔師古註(應劭註) 「超遠也」에 근거한 加點인데, 現行 漢和辭典에서는 이 예만을 근거로 하여 「超」에 「すみやか」라는 의미를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神田喜一郎(1935)의 校勘記에 「註超遠也各本遠作速」이라고 적혀 있는 바와 같이, 現行 漢和辭典이 근거한 후세의 漢書 텍스트에 「超速也」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日本語 訓과 함께 귀중한 逸文이다.

이상과 같은 『古文尙書』, 『漢書楊雄傳』에 비해 『毛詩卷第六』, 『春秋經傳集解』, 『世說新書』는 日本語 訓과 古註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

9) 자세한 것은 石塚晴通(1992b) 참조.

다. 『毛詩卷第六』은 欄外에 『毛詩正義』의 卷數가 기록되어 있고, 『春秋經傳集解』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古文尙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左傳正義』를 참조하고 있다. 또 『世說新書』는 후술하는 것처럼 細註(劉孝標註)에도 상세하게 加點되어 있어서 이들 자료에도 正義나 古註(細註)가 참조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語 訓과 古註의 관계가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것은 이들 자료에

- 日本語 訓의 加點이 적기 때문에 註釋書와의 관련을 검증할 수 없다.
- 고유명사 등, 본래 日本語가 아닌(즉 대역이 없는) 漢語가 많다.
- 註釋書의 내용이나 형식이 解釋·訓詁型이 아니라 사물을 고증하는 유형의 것이 많다.

와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10]

3.3 訓點과 註釋書의 관련은 經書와 經書 以外의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

築島裕(1980)는 天理圖書館藏 『五臣注文選卷二十』(院政初期點)의 加點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이 세 종류의 점을 통해서 加點된 부분은 『文選』의 本文뿐 아니라 註文 부분에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本文만 加點하고 註文에 加點하지 않은 예는 우리나라의 紀傳 관계의 古點本에는 널리 볼 수 있고 『史記』 呂后本紀, 孝文本紀, 孝景本紀 延久點, 同 夏本紀, 殷本紀, 周本紀, 秦本紀 鎌倉初期點 등이 그 예이다. 같은 博士家 古點이라도 明經道系의 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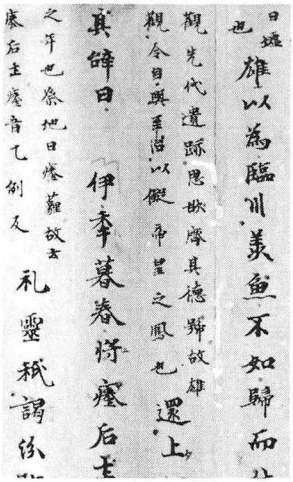
10) 『毛詩卷第六』에 대해서는 小助川貞次(2003), 『春秋經傳集解』에 대해서는 小助川貞次(2001b, 2001c), 『世說新書』에 대해서는 小助川貞次(2005d, 2006b) 참조.

書類에서는 註文에도 加點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古代 儒學의 硏學 내용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3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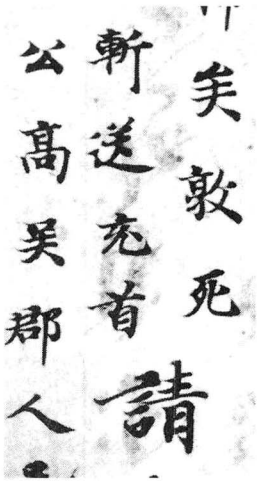
이것은 訓點과 古註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적이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古代 律令制度에서의 텍스트 양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現存 資料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면 經書 以外의 訓點資料에서도 註文에 加點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漢書楊雄傳』과 『世說新書』를 보면 註文 부분에 상당량의 加點이 보인다.[11]



<사진 11-1>
五臣注文選(註文)



<사진 11-2>
漢書楊雄傳(註文)



<사진 11-3>
世說新書(註文)

<표 4> 本文과 註文에 대한 加點

	仮名訓		오코토點		句讀點		聲點	
	本文	註文	本文	註文	本文	註文	本文	註文
漢書楊雄傳	407	0	2014	112	885	306	655	0
世說新書(京博本)	27	6	546	385	339	331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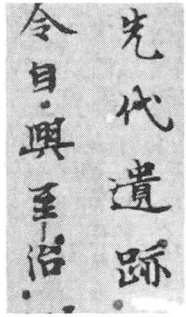
11) 자세한 것은 小助川貞次(2005f) 참조.

특히 『世說新書』에서는 劉孝標註(細註)에 대한 加點이 밀도 있게 행해져 있고, 加點 상태는 本文과 전혀 차이가 없다. 이것은 劉孝標註가 本文의 一字一句를 해석하는 訓詁的인 註釋이 아니라, 『中興書』, 『晉陽秋』, 『(陸邁)碑』, 『(陸)別傳』, 『文章志』 등의 여러 가지 先行 典籍을 이용하여 本文에 대한 고증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世說 텍스트와 함께 劉孝標註 자체가 또 하나의 텍스트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漢書楊雄傳』의 顔師古註(細註)에 대해서는 全卷에 걸쳐 균일하게 加點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本文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5> 『漢書楊雄傳』 顔師古註(細註)에 대한 加點의 편중

內容	本行所在	割行數	句讀點	오코토點	註 기입
反離騷	001-103	43	95	8	72
甘泉賦	103-280	103	55	5	145
記 事	281-305	14	19	25	13
河東賦	306-368	38	58	65	34
校獵賦	368-555	143	77	8	111



<사진 12> 漢書楊雄傳
(註文에 대한 加點)

『漢書楊雄傳』은 네 개의 작품의 인용과 하나의 記事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甘泉賦」와 「校獵賦」는 『文選』 卷七 및 卷八에도 수록되어 있어서(「反離騷」도 屈原 「離騷」에 대한 反論으로, 「離騷」는 『文選』 卷三十二에 수록), 李善注나 五臣注 혹은 그것의 音決, 陸善經 등을 부가한 『集注』와 같은 註釋書類가 풍부하다. 이에 비해 「記事」와 「河東賦」는 『漢書』 以外의 텍스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顔師古註가 거의 유일한 註釋書이다. 기입된 註인 『漢書古今集義』나 『漢書訓纂』도 「記事」와 「河東賦」에 대한 音註만을 이용한 것이 많고, 내용에까지 註釋을 단 것은 역시 顔師古註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

다면 顔師古註(細註)의 加點에 보이는 「편중」은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漢書楊雄傳』이나 『世說新書』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동일 본문을 지닌 訓點資料가 現存하지 않기 때문에 단발적인 현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史記』 訓點資料(集解本)의 경우 集解(細註)에 대한 加點이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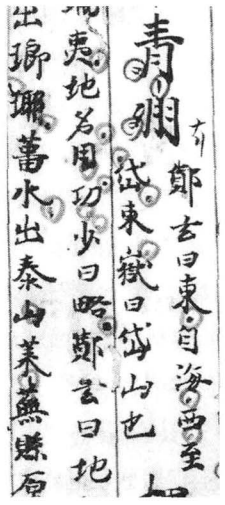
夏本紀는 東洋文庫本과 台湾 國家圖書館本은 동일한 本文을 지닌다. 東洋文庫本에는 集解(細註)에도 자세하게 加點되어 있는 데 비해서, 台湾 國家圖書館本에는 전혀 加點이 없다. 이것은 加點時期나 加點者, 그리고 배경에 있는 학문 방법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延久五年史記(呂后本紀, 孝文本紀, 孝景本紀)는 모두 學生 「大江家國」에 의한 書寫加點本이지만 卷에 따라 加點 내용이 다르고, 孝文本紀만 集解에 加點되어 있다. 이렇게 기입된 註의 종류와 수량에도 동종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三卷 모두 司馬貞 『索隱』이나 鄒誕生 『史記音』이 기입되어 있지만, 孝文本紀에만 漢書諸註의 인용이 보인다. (『史記』의 이 卷들은 『漢書』에도 수록되어 있다.) 三卷 중에서 특히 孝文本紀가 보다 착실하게 학습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集解에 대한 加點도 이러한 학습밀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集解 部分(細註)에 加點이 없는 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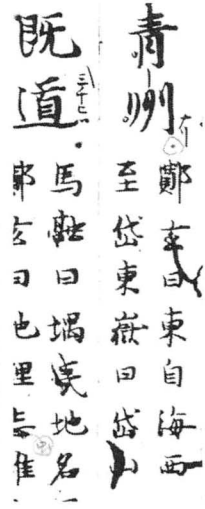
- 夏本紀(台湾 國庫圖書館藏, 鎌倉中期點)
- 殷本紀(高山寺藏, 建曆元年(1211) 傳授奥書)
- 呂后本紀(毛利博物館藏, 延久五年(1073)點)
- 孝景本紀(大東急記念文庫藏, 呂后本紀와 僚卷)
- 孝景本紀(實踐女子大學藏, 大治二年(1127)點)

○集解部分(細註)에도 加點이 있는 資料

- 夏本紀(東洋文庫藏, 平安末 또는 鎌倉初期點)
- 周本紀(高山寺藏, 鎌倉初期頃點)
- 秦本紀(東洋文庫藏, 天養二年(1145)點)
- 孝文本紀(東北大學藏, 呂后本紀와 僚卷)



<사진 13-1> 東洋文庫本 史記



<사진 13-2> 台湾 國家圖書館本 史記

<표6> 延久本 史記 諸本의 比較

史記	集解에 대한 加點	대응하는 漢書	기입된 註
卷9 呂后本紀	×	卷3 高后紀	司馬貞索隱・鄒誕生史記音・師說・今案・切韻・音註
卷10 孝文本紀	○	卷4 文帝紀	司馬貞索隱・鄒誕生史記音・晋灼漢書集註・漢書顔師古註・顧胤漢書古今集義・師說・今按・音註
卷11 孝景本紀	×	卷5 景帝紀	司馬貞索隱・鄒誕生史記音・陸善經史記註・音註

그러면 經書訓點資料와 經書 以外의 訓點資料 사이에는 차이가 없느냐 하면 실은 그렇지 않다. 經書訓點資料의 경우, 細註 부분에 대한 加點 내용은 經 本文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破音・聲點, 仮名訓, 오코토點이 풍부하다. (단 『毛詩卷第六』, 『春秋經傳集解』는 仮名訓이

적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經書 以外의 訓點資料는 細註 부분에 대한 加點은 있어도 句讀點이나 返讀에 동반되는 오코토點 본위의 加點이 중심이고, 仮名訓이나 破音·聲點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經書 以外의 訓點資料에서 細註에 대한 加點은 細註 자체의 一字一句를 해석하기 위한 加點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本文(本行)을 이해하기 위한 加點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經書訓點資料는 細註를 포함하는 텍스트 전체가 訓讀의 대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世說新書』는 텍스트와 訓讀의 양상이 經書訓點資料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3.4 訓讀加點의 배경에는 律令制度(大學寮의 存在)가 있다.

이러한 經書訓點資料와 經書 以外의 訓點資料 사이에서 보이는 차이는 律令制度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學令」(『養老令』)의 규정에 지정되어 있는 經書는 전통적인 古註와 세트로 지정되어 있고, 또 「考課令」에서도 本文과 古註를 함께 읽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古註에 관한 규정은 經書 以外에서는 볼 수 없다.

○學令 「教授正業條」(『新訂增補國史大系』 130쪽)

凡教授正業.周易鄭玄王弼注≪謂.非是一人兼習二家.或鄭或王.習其一注.若有兼通者.既是爲博達也.≫尚書孔安國鄭玄注.三礼毛詩鄭玄注.左傳服虔杜預注.孝經孔安國鄭玄注.論語鄭玄何晏注.

○考課令 「明經條」(『新訂增補國史大系』 166쪽)

凡明經.試周禮.左傳.禮記.毛詩.各四條.餘經各三條.孝經.論語.共三條≪謂.論語.孝經.猶一部之書也.≫皆學經文及注爲問.其答者.皆須辨明義理.然後爲通.通十爲上々…

실제로 現存하는 漢籍古寫本, 특히 經書訓點資料는 모두 이 규정대

로 古註를 細註로 가지고 있는 텍스트이고, 細註를 갖지 않는 單經本 經書訓點資料는 존재하지 않는다. 經書訓點資料에서 註文에도 상세한 加點이 행해진 것은, 이러한 제도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덧붙여 經書에서 註文에 대한 加點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예를 들었던 것처럼 六朝 이래의 「正義」, 「義疏」와 같은 古註를 포함하는 텍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한 註釋書類나 陸德明 『經典釋文』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예를 들어 『文選』의 경우, 텍스트로서는 「選叙令」, 「考課令」 등에 규정이 있지만 古註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選叙令 「秀才進士條」(『新訂增補國史大系』 143쪽)

凡秀才.取博學高才者.(註略)明經.取學通二經以上者.進士.取明閑時務.幷文選.爾雅者.明法.取通達律令者.皆須方正淸脩.名行相副.…

○考課令(『新訂增補國史大系』 166쪽)

凡進士.試時務策(註略).二條.帖所讀.文選上帙七帖(註略).爾雅三帖.其策文詞順序.義理愜當.幷帖過者.爲通.…

現存하는 『文選』 訓點資料도 無注本, 五臣注本, 集注本 등 다양하고, 經書訓點資料와는 텍스트 자체의 양상이 다르다.[12]

4. 敦煌加點本에서 加點의 意味

日本에서 漢籍訓點資料는 佛書訓點資料보다 1世紀 정도 늦은 10世紀 初에 출현한다. 이것은 오코토點(第五群點)과 仮名點(省畵仮名)이

12) 『文選』 古寫本 전반에 대한 문제는 小助川貞次(2002) 참조.

라는 加點 수단을, 이 시기에 佛書의 세계(天台宗)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또 최근 敦煌文獻에 加點된 角筆의 부호와 註記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智證大師)圓珍이 在唐中에 알게 되어 일본으로 돌아간 후 사용한 「點」은 科段點이나 句를 나누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敦煌文獻의 加點과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한 小林芳規 博士의 견해[13]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平安中期 漢籍訓點資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句讀, 科點, 破音, 聲點, 註釋도 漢籍 고유의 것이 아니라 天台宗을 경유하여 漢籍으로 유입된 새로운 中國樣式의 학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서는 日本의 訓讀·加點의 起源 그 자체가 韓國에 現存하는 角筆文獻(點吐口訣)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한편 漢籍의 所管, 즉 텍스트의 선택이나 古註와의 세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佛書의 세계와는 관계없이 律令制度에 근거한 大學寮·博士家에 있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中國의 제도를 본뜬 것이다.[14] 그렇다면 漢籍을 둘러싼 학문 체계도 제도와 함께 유입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敦煌加點本[15]과 日本의 初期 漢籍訓點資料를 비교해 보면, 이하의 세 가지 점에서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첫 번째는, 특히 經書의 경우 모두 古註를 함께 가지고 있는 텍스트이며, 게다가 古註에 대한 加點이 대부분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加點된 내용이다. 敦煌加點本에는 本文校合, 句讀, 科段, 破音이 보이는데, 『毛詩卷第六』, 『春秋經傳集解』 등의 初期 漢籍訓點

13) 小林芳規(1997).
14) 桃裕行(1947), 仁井田陞(1997) 참조.
15) 敦煌加點本 문제에 대해서는 註 13의 文獻 외에 石塚晴通(1967, 1969, 1970, 1992a, 1993, 1995), 小助川貞次(2004, 2005b, 2006a)에 자세하다.

資料에서 오코토點과 仮名點을 제외하면 역시 本文校合, 句讀, 科段, 破音·聲點이 남는다. 특히 破音·聲點은 日本 訓點資料의 경우 10世紀 이전의 佛書訓點資料에서는 한 점도 확인되지 않는 데 비해, 初期漢籍訓點資料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중요하다.[16] 大英圖書館 스타인컬렉션의 『毛詩鄭箋』(S.10), 同(S.134), 日本의 『春秋經傳集解』에 나타나는 加點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7> 毛詩鄭箋(S.10)

□. □	:	674
□·□	:	15
破音點	:	129
科點⌐	:	12
科點 ●	:	12
塗 抹	:	2
音註 기입	:	143(紙背)
合計		987

<표8> 毛詩鄭箋(S.134)

□. □	:	170
□·□	:	44
破音點	:	24
見 消	:	6
重 書	:	13
補 入	:	15
科點⌐	:	2
合計		274

<표9> 春秋經傳集解

오코토點	:518
返點	:174
合符	: 18
仮名點	: 9
□. □(句點)	:244
□·□(讀點)	: 46
聲點	: 29
音註 기입	: 20
正義와 대조⌐ ●	: 39
科點(經傳의 대응) ●	: 22
本文校合註 등	: 18
合計	1137

句讀點이나 破音·聲點의 加點과 함께 주목할 것은, 범위를 나타내는 부호가 敦煌加點本과 日本 漢籍訓點資料에서 같은 형태의 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日本의 『古文尙書』, 『春秋經傳集解』에서는 『正義』에 실린 註解 범위를 「⌐」(시작)과 「●」(끝)(細註 내에서는 「·」과 「·」)을 加點하여 대응시키고 있는데, 敦煌加點本 『毛詩鄭箋』(S.10)에서도 「⌐」는 各篇의 小序가 끝나고 本體가 시작하는 부분에 加點되어 있고, 「●」는 各篇 末尾에서 章句數를 기록한 부분의 첫머리에 加點되어 있다.

16) 石塚晴通(1995) 참조.

「¬」과 「●」의 全例(숫자는 行數, ／는 改行)

10:「終風且暴. ～ 15:●終風四章々四句
擊鼓・怨州吁也.

18:「擊鼓其鏜. ～ 23:●擊鼓五章々四句
／凱風美孝子也.

25:「凱風自南. ～ 29:●凱風四章々四句
雄雉・刺衛宣公也.

30:「雄雉于飛. ～ 35:●雄雉四章々四句
匏有苦葉・刺衛宣公也.

36:「匏有苦葉. ～ 42:●匏有四章々四句
谷風・刺夫婦失道也.

43:「習々谷風. ～ 56:●谷風六章々八句
式微・黎侯寓于衛／也.

57:「式々微々. ～ 59:●式微二章々四句
旄・丘責衛伯也.

60:「旄丘之葛兮. ～ 66:●旄丘四章々四句
簡兮・刺不用賢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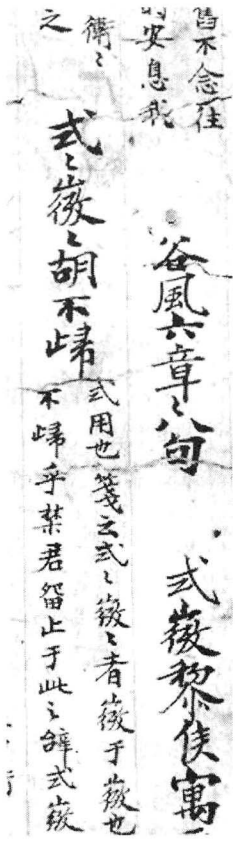
67:「簡々兮々. ～ 72:●簡兮三章々六句
泉水・衛女思歸也.

73:「毖彼泉水. ～ 80:●泉水四章々六句
北門・刺仕不得其志也.

81:「出自北門. ～ 85:●北門三章々七句 ／北風刺虐也.

86: 北風其涼. ～ 90:●北風三章々六句 靜女刺時也衛君無道.

91:「靜女其姝 ～ (尾欠)



<사진14> S.10 56~57行

이것을 단순화하면 作品 一篇에 대한 加點 스타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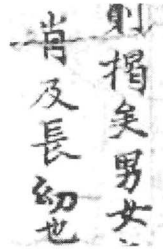
題名・小序～ 「毛詩本體～ ●題名章句數

즉, 各篇의 本體 부분은 「冂」(시작)과 「●」(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冂」과 「●」을 사용하는 방법은 P.2509(春秋經傳集解), P.2562(同)에서도 볼 수 있다. 여러 종류의 부호가 日本과 中國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생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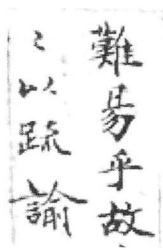
세 번째는 破音・聲點을 加點할 때 어떠한 판단에 기초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毛詩鄭箋』(S.10)에는 紙背에 音註가 기입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王重民(1958), 平山久雄(1966+), 遠藤光曉(1990, 2001)에서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기입된 농도로 볼 때 『毛詩音』과 『經典釋文』의 混合寫本이라고 한 遠藤光曉의 지적은 중요하다. 그러나 本文에 加點된 破音은 이들 紙背 音註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毛詩音』, 『經典釋文』 모두 거기에 적힌 音註에는 難讀字의 한자음과 常用字의 破讀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데 비해서, 실제의 破音 加點은 常用字의 破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常用字의 파독에 대한 加點은 『毛詩鄭箋』(S.13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10 『毛詩鄭箋(S.10)』의 破音과 音註 對照表

	加點 있음	加點 없음	小計
*紙背音註 있음	31 (0.24)	124	155
*經典釋文 있음	70 (0.55)	269	339
한쪽만 있음	74 (0.58)	287	–
모두 없음	53 (0.42)	–	–
合 計	**127	–	–



<사진15-1>
S.10 「長」



<사진15-2>
S.10 「易」

*「下同」, 「註同」 등으로 나타낸 것도 포함한다.

** 破音의 加點 全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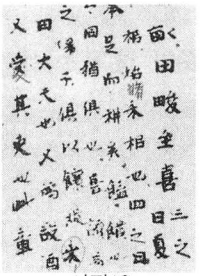
[平聲] 尉1, 來1, 行1, 畿1, 与2, 卑1, 過1, 還3,
歎1, 更1, 催1, 耶3, 且3
[上聲] 長9, 烝1, 女3, 牡2, 已4, 殷1
[去聲] 將3, 難5, 尉1, 樂1, 興10, 展2, 思1,
行10, 從1, 燕3, 見3, 易3, 爲2, 遣5,
中2, 好5, 稱1, 遠1, 殷1
[入聲] 畜4, 日13, 契1, 尉1, 慰1, 樂3, 數1,
舍1, 害2, 適1


<사진15-3>
S.10 「歎」


<사진15-4>
S.10 同裏書

<표11> 『毛詩鄭箋(S.134)』의 破音과 音註 對照表

	加點 있음	加點 없음	小計
*經典釋文 있음	7	95	102
經典釋文 없음	17	—	—
合 計	**24	95	102


<사진16>
S.134 「喜」「曰」「爲」

* 「下同」, 「註同」 등으로 나타낸 것도 포함한다.

** 破音의 加點 全例
[去聲] 爲2, 喜1, 著1, 食1
[入聲] 日16, 剝2, 暴1

『經典釋文』(혹은 S.10 紙背의 『毛詩音』과 같은 音義) 전체에서 常用字의 破讀과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면 실제로 敦煌加點本에 보이는 破音의 典據를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破音 加點의 배경에는 특정 텍스트에 밀착된 『經典釋文』과 같은 音義書가 있었다기보다는 여러 자료에 공통되는 破音 加點의 기반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敦煌加點本의 조사범위를 넓혀 가면 필시 특정 典籍

에 의존하지 않는 破音字의 「常用文字 세트」가 추출될 것이다. 敦煌加點本의 破音字에 『經典釋文』과 합치되는 것이 보이는 것은, 오히려 『經典釋文』이 그러한 「常用文字 세트」를 集大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비해 日本의 漢籍訓點資料는 破讀을 나타내는 破音과 더불어 難讀字에 대해 四聲을 나타내는 聲點이 加點되어 있다. 먼저 『春秋經傳集解』와 『毛詩卷第六』을 예로 들어서 經書訓點資料에서는 陸德明 『經典釋文』이 참조된 후에 破音·聲點이 加點되었음을 보였다. 日本의 漢籍訓點資料 쪽이 敦煌加點本보다도 구체적인 註釋書에 의거한 加點이 많다. 이것은 敦煌加點本과 日本의 漢籍訓點資料의 加點時期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어찌 되었든 복수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破音·聲點의 加點은 결코 加點者 개인의 판단만으로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내용에 상응하는 學問的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敦煌加點本과 日本의 漢籍訓點資料(특히 經書의 경우)는 日本語에 의한 訓讀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공통되는 점이 대단히 많다. 日本의 漢籍에 대한 加點 방법(오코토點과 省畵仮名)이 天台宗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간은 中國의 제도나 학문양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앞으로의 展望

(1) 現存 資料의 再調査

이미 複製本이나 解讀文이 公刊된 자료라도 원본을 대상으로 再調査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일이 의외로 많다. 角筆

點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朱·墨이 잘못 묻은 것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의미 있는 부호인 것도 있다. 또 訓點이 없다고 생각되는 唐代 寫本이나 奈良朝 寫本에도 加點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春秋經傳集解卷第二』는 그 좋은 예이다.) 佛書訓點資料에 비해 漢籍訓點資料의 現存 點數가 적다고 하는 단점은 역으로 자료 전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기도 하다.

(2) 敎材와 敎授法의 開發

訓點資料의 연구에는 實地調査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訓點資料에 관심을 가진 모든 연구자가 實地調査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더구나 대학교 수업 중에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전부터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다른 日本語·日本文學 자료에 비해 訓點資料는 敎科書나 資料集이 너무나 적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컴퓨터 환경이 현격하게 발전한 지금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國寶, 重要文化財級의 訓點資料는 畵像이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것도 적지 않다.

문제는 어떠한 것이 공개되어 있는가, 訓點資料로서의 기초적인 정보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吉澤義則『點本書目』이나 遠藤嘉基·廣浜文雄『新版點本書目』을 대신할『디지털版 點本書目』을 작성하고 訓點資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책이다. 그런 후에 그 자료가 지니는 文獻學的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訓點을 해독하는 것은 日本語學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訓點資料는 日本語學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文獻學的 가치를 지니고 있다. 汎用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디지털畵像이 지니는 특징이다. 이상의 것을 포

괄하는 敎材나 敎授法의 開發이 반드시 필요하다.

(3) 訓讀硏究를 東아시아 漢字文化圈으로 擴大할 必要性

漢文訓讀은 日本語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라 東아시아 漢字文化圈에 공통된 현상이라는 점은 구체적인 加點資料의 존재로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漢文 텍스트 전체에 직접 加點된 자료는 日本語, 中國語, 韓國語에 의한 것이 존재한다.[17] 漢文訓讀의 범위를 이와 같이 東아시아 漢字文化圈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음에 열거하는 것과 같은 訓讀에 관한 本質的인 문제를 해명하는 데 극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 訓讀이 텍스트를 벗어난 翻譯이 아니라 텍스트에 加點하는 것을 채택한 것은 어째서인가?
- 오코토點이나 仮名點 등을 포함한 諸符号(訓點)의 起源은 어디에 있는가?
- 日本에서 訓點資料는 佛書, 漢籍, 國書 사이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가?
- 漢文資料의 受容과 訓讀은 당시의 學問史, 文化交流史, 古典學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訓點資料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가?[18]

東아시아 漢字文化圈에까지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韓國, 中國, 歐美의 東洋學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17) 위구르語, 베트남語에 의한 漢文訓讀에 대해서는 庄垣內正弘(2001), 石塚晴通(1993, 2001) 참조.
18) 자세한 것은 小助川貞次(2006b) 참조.

필수적이다. 다행스럽게도 韓國의 研究者들과는 최근 몇 년간 國際會議 개최 및 공동조사를 통해 앞선 畵像處理技術이나 객관적인 解讀方法·記述方法 등 日本側 연구자가 배울 만한 점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日本과 韓國의 연구자가 中國의 연구자 및 敦煌文獻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유럽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參考文獻

石塚晴通(1967),「中國中古の加點本につきて」(第17回訓點語學會)

石塚晴通(1969),「聲點の起源につきて」(國語學會 → 要旨『國語學』78輯)

石塚晴通(1970),「樓蘭・敦煌の加點本」(『墨美』201)

石塚晴通(1992a),「敦煌の加點本」(講座・敦煌第5卷『敦煌漢文文獻』, 大東出版社)

石塚晴通(1992b),「上野本漢書楊雄傳の訓注と朱點－古辭書及び現行漢和辭典の記述に及ぶ－」(『訓點語と訓點資料』第88輯)

石塚晴通(1993),「中國周辺諸民族に於ける漢文の訓讀」(『訓點語と訓點資料』第90輯)

石塚晴通(1995),「聲點の起源」(築島裕編『日本漢字音史論輯』, 汲古書院)

石塚晴通(2001),『訓點語辭典』「總說」(東京堂出版)

遠藤光曉(1990),「在歐のいくつかの中國語音韻史資料について」(『開篇』7)

遠藤光曉(2001),「敦煌≪毛詩音≫S.10V寫卷考辨」(青山學院大學『論集』第42号)

王重民(1958),『敦煌古籍敍錄』(商務印書館)

神田喜一郎(1935),『漢書楊雄傳殘卷』解題(京都帝國大學文學部)

神田喜一郎(1949),『日本書紀古訓攷証』(養德社)

小助川貞次(1987),「上野本漢書楊雄傳訓點の性格－中國側注釋書との關係－」(『訓點語と訓點資料』第77輯)

小助川貞次(1990),「上野本漢書楊雄傳の聲點について」(『國語國文研究』第86号)

小助川貞次(1998),「上野本漢書楊雄傳天曆二年點における典據の問題について」(『訓點語と訓點資料』記念特輯)

小助川貞次(2000),「進化する訓點資料」(『日本語學』第19卷第11号, 明治書院)

小助川貞次(2001a),「漢籍」(吉田金彦他編『訓點語辭典』, 東京堂出版)
小助川貞次(2001b),「加點希薄な漢籍訓點資料における典據の問題」(國際ワークショップ「漢文古版本とその受容(訓讀)」報告書, 北海道大學)
小助川貞次(2001c),「訓點資料として見た春秋經傳集解卷第二について」(第85回訓點語學會, 福井大學)
小助川貞次(2002),「日本國內に現存する文選古鈔本の原本調査に基づく文選訓讀についての總合的研究」(科研費報告書)
小助川貞次(2003),「十世紀加點の漢籍訓點資料の位置」(『日韓漢字・漢文受容に關する國際學術會議論文集』, 富山大學人文學部)
小助川貞次(2004),「敦煌本毛詩鄭箋(S.10)の加點方法について」(第90回訓點語學會)
小助川貞次(2005a),「漢文訓讀の研究と大學教育」(富山第一銀行奬學財團研究助成事業・プロジェクト報告書, 富山大學)
小助川貞次(2005b),「敦煌漢文文獻における破音加點の背景」(第92回訓點語學會)
小助川貞次(2005c),「尙書正義との關係から見た古文尙書平安中期點の問題」(『日本學・敦煌學・漢文訓讀の新展開』, 汲古書院)
小助川貞次(2005d),「漢籍訓點資料における世說新書の位置」(韓國口訣學會第3回國際學術會議, ソウル市立大學校)
小助川貞次(2005e),「上野本漢書楊雄傳天曆二年點における切韻と玉篇の引用について」(『築島裕博士傘壽記念國語學論集』, 汲古書院)
小助川貞次(2005f),「漢籍訓點資料における割注への加點について」(第93回訓點語學會, 仙台市戰災復興記念館)
小助川貞次(2006a),「東アジア漢文訓讀資料としての敦煌加點本の意義」(國際ワークショップ「典籍交流(訓讀)と漢字情報」, 北海道大學)
小助川貞次(2006b),「訓點資料が出來上がるプロセスについて」(『訓點語と訓點資料』第117輯)
小助川貞次(2006c),「デジタル版點本書目の構想について」(第95回訓點語學會, 岡山大學)
小林芳規(1997),「敦煌文獻に加點された角筆の符号と注記及び本邦の古訓點との關係」(『訓點語と訓點資料』第100輯)
築島裕(1980),「訓點解說」(『天理圖書館善本叢書漢籍之部第二卷 文選 趙志集

白氏文集』, 八木書店)
庄垣內正弘(2001), 「ウイグル語における漢文訓讀」(國際ワークショップ「漢文古版本とその受容(訓讀)」, 北海道大學)
仁井田陞(1997), 『唐令拾遺補－附唐日兩令對照一覽』(東京大學出版會)
沼本克明(1969), 「古文尙書平安中期點の字音注記の出典について」(『國語學』第78集)
沼本克明(1982), 『平安鎌倉時代に於る日本漢字音に就ての研究』(武藏野書院)
原卓志(1987), 「毛詩唐風平安中期點における經典釋文の利用－聲點・點發を通して－」(『國文學攷』第114号)
平山久雄(1966+), 「敦煌毛詩音義殘卷反切の研究」(『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14-3, 『東洋文化研究所紀要』 78(1979), 『同』 80(1980), 『同』 90(1982), 『同』 97(1985), 『同』 100(1986), 『同』 105(1988))
松本光隆(1982), 「漢書楊雄傳天曆二年點における訓讀の方法」(『國語學』 第128集)
桃裕行(1947), 『上代學制の研究』(目黑書店)

〔3190 Gofuku, Toyama 930-8555 JAPAN〕
E-mail: kskgawa@hmt.u-toyama.ac.jp
접수일자: 2006. 12. 30.
게재결정: 2007. 01. 22.

日本における漢籍訓点資料研究の現状と課題

小助川貞次

1．訓点資料・訓点語研究の現状

日本における訓点資料・訓点語研究はほぼ百年の歴史を持つ。この間、目録や複製本、研究書などが数多く公刊され、研究を推進できる基盤が整っている。しかし、現在の研究状況は、若手の研究者や指導者が不足し、決して楽観できない。さらに実地調査の現場でしか伝授できない様々な「技（わざ）」をどのように保存し継承して行くのかということも大きな課題である。

2．漢籍訓点資料の背景にある学問的活動

日本における漢籍訓点資料は仏書訓点資料に比べて現存点数が少なく、鎌倉時代までの書写加点本を含めても二百点ほどしかない。そのために、漢籍訓点資料を相互に比較し、そこから訓読加点の背景を探るには難しい一面もある。しかしテキストの形態、注釈書の書込み、訓点と注釈書との関係、さらには加点の分布などから考えると、訓読加点の背景には制度によって支えられた高度な学問的活動があったことが見えて来る。さらにそのような学問的活動を反映する加点は、敦煌文献でも同様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日本における漢籍訓読の根幹が中国の制度や学問様式と深い関係にある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

3．今後の見通し

訓点資料は一般の文字資料のように安定した資料ではない。複製本や解読文が公開された資料でも、実地に再調査することによって新たな発見が伴うことは意外と多い。またコンピュータ環境が格段に進んでいる現在、公開されている画像データベースを利用することもできる。ただし、訓点資料・訓点語研究の立場から構築されたデータベースやデータベースそのものについての情報が少ないので、『デジタル版点本書目』を作成することも必要である。さらに、漢文訓読は東アジア漢字文化圏に共通する現象であり、訓読に関わる本質的な問題を解明する上で重要な観点となる。

現在の厳しい研究状況を解決するためには、新しい教材と教授法を開発することは勿論必要であるが、日本、韓国、中国、欧米の東洋学者とのネットワーク形成や共同研究を行なうことも不可欠である。

*キーワード: 漢籍訓点資料, 漢文訓読, 学問的活動, 敦煌文献, 東アジア漢字文化圏